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데이터 시대의 백과사전 편찬 모델” 에 대한 토론문

Discussion on “The Encyclopedic Archive: The Model of Encyclopedia Compilation in the Digital Data Age”

장경식, 한국백과사전연구소 대표

Jang, Kyungsik, *The Korean Institute for Encyclopedic Knowledge* / Representative

- 김현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연구해오신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의 개념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선생님을 처음 뵈는 것이 1990년대 초 『국역 조선왕조실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CD-Rom 개발을 진두지휘하시던 무렵입니다. 인문학 연구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셨던 선생님의 탁견이 저에게는 아직도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선생님께서 발제하신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백과사전 아카이브에 대한 기술적, 개념적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는 것으로 오늘 토론자의 몫을 다하고자 합니다.

- 전통적 의미의 백과사전이 분야별 전문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담당했다면, 선생님의 발표와 같이 오늘날 '백과사전적 지식 서비스'로 불리는 일련의 검색 서비스는 백과사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 오늘 발표에서 선생님은 시맨틱 웹 기술을 기반으로 흩어져 있는 지식의 조각들을 연결시켜 '보다 전문적인 지식'에서 '그 지식의 근거가 되는 원천 자료'로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디지털 시대 백과사전 아카이브를 실행 가능한 주요 성과로 상정하고,
- 데이터 네트워크 형태의 백과사전, 지식과 자료를 넘나드는 융합 콘텐츠, 가상 현실에서 지식을 탐구하는 시각적 체험 공간, 집단지성의 기여로 확장되는 개방적 데이터의 형태로 구현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 요약하자면,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는 전통적 개념의 구조화된 메타지식의 데이터가 아니라, 시맨틱 웹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된 지식의 중재자이자 매개자 역할로 정의됩니다. 이는 디지털 인문학의 기술적 지향을 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고 여겨집니다.
- 전통적 백과사전은 보통 독자에게는 '학습'과 '참조'의 효용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담론 구성체'로 기능해 왔습니다.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는 이중 '참조'의 깊이와 경계를 무한 확장한다는 점에서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통적 개념의 백과사전의 본질에 비추어볼 때 모호한 영역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 오늘 나머지 두 가지 효용에 대한 실천적 가능성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 첫째, 백과사전은 보통 특정 독자에게 '학습'의 효용을 제공합니다. 이는 전통적 백과사전을 편찬할 때, 지식에 대한 비평적 기준을 세우고, 이를 편찬지침에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개별 지식을 선정하고 다듬는 전문 편집자의 역할이 필요했던 주된 까닭이기도 합니다.
- 학습이 강조되는 백과사전의 경우 개별 교육과정에 적합한 수준으로 항목의 선정과 기술, 적절한 표현 방법이 요청됩니다. 일반인을 위한 인쇄본 백과사전은 종언을 고했지만, 어린이를 위한 다종다양한 백과사전류는 지금도 인쇄본으로 개발, 판매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말씀하신 백과사전적 아카이브가 개방된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시맨틱 웹을 이용한 자동화된 아카이브를 의미할 때, 어린이와 같은 특정 학습자를 위해 그 아카이브의 영역을 제한하고, 대상 학습자를 위한 비평적 선별과 함께 텍스트와 이미지의 적절하고 유의미한 가공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둘째, 전통적인 백과사전은 세상의 모든 사물을 특정 담론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해설한 콘텐츠로, 사용자에게 세상에 대한 통시적이고 구조적인 통찰력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담론 구성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의 상징인 디드로의 『백과전서』가 구조와 내용에서 근대를 견인했던 것처럼, 백과사전은 담론의 귀납적 결과물이면서, 또한 연역적으로 담론의 생산과 유통에 기여하는 네트워크의 한 중심이었습니다.
- 전통적 백과사전이 편찬 주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담론의 구성체를 제시하여 사회의 다양성에 기여했다면,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는 궁극적으로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자체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의 연결이 만일 자동화된 시맨틱 웹으로 구성된다면, 이는 '편찬 주체가 제공하는 담론의 부재'를 뜻하게 됩니다. 디지털 인문학의 유의미한 완성을 위해서는, '디지털'보다 '인문학'에 방점이 찍힌 다양한 '담론'의 구축과 그것의 물리적 구성체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선생님의 고견을 여쭙습니다.